

'88년 사업 활성화 위한 방안 토의

—健協, 사업 및 홍보요원 교육 실시



◀이관영 사무총장의 교육에 대한 강평

健協은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사업 및 홍보요원 교육을 경상북도 경주에서 실시했다.

'87년도 건강 및 기생충 관리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고, '88년도 본회 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토의하는 한편 지부별 세부사업추진 지침을 수립하여 일선 업무를 보다 능률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 이번 교육에는 각 시도지부에서 50여명의 사업·홍보요원이 참석했다.

첫날 있는 훈시에서 서병설 건협 회장은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며, 예방의학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본회의 목적에서 볼 때 사업 및 홍보요원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에서 많은 실무지침들을 토의·모색하여, 그야말로 봉사한다는 자세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관영 사무총장은 「사업 및 홍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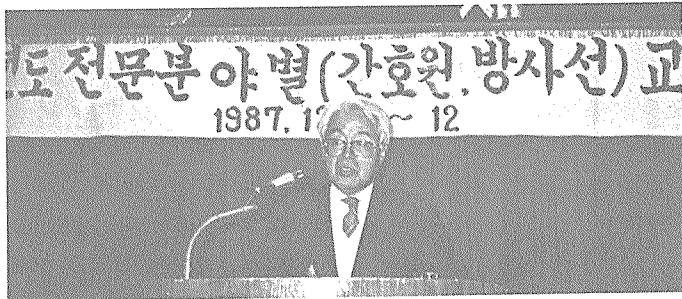
원은 협회의 얼굴이며, 건강관리사업의 개척자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여, 자신의 일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강한 체질의 요원이 되자.」면서 「'87년을 마무리하면서, '88년에는 기생충관리에 있어서는 요충퇴치에, 건강관리분야에서는 심전도 사업과, 유아기 건강관리에 각각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첫날인 3일에는 '87년도 상반기 사업실적 평가 및 '88년도 사업추진 방법을 성정용 사업부장이, 간염 및 성병검사에 대한 교육을 한인수 조사연구부장이 맡아 실시했으며, 4일에는 지부별 세부사업추진지침을 각 지부별로 연구·발표했다.

마지막날인 5일에는 정병교 홍보부장의 「수검자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2차 홍보강화 및 중요추진사례」에 관하여 강의를 하고, 이관영 사무총장이 지부별 세부사업추진 지침에 관한 평가와 교육강평이 있었다.

전문분야에 대한 다양한 강의 및 토의

- 건협 간호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전문 분야 교육



◀서병설 회장의
교육생들에 대한
훈시

健協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동안 간호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전문분야별 교육을 실시했다.

첫날, 개강에 있는 훈시에서 이관영 건협 사무총장은 『간호원 및 방사선 분야는 정확한 건강검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88년도 각종건강검사 업무에 대비,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호원과 방사선사가 각각 나뉘어져 실시된 이번 교육은, 간호원 분야에 김화중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보건간호학」, 「의료전달체계」, 「self-care-treat」에 관해, 오대규과장(보사부 방역과)이 AIDS상담교육을, 이증범건협서울지부 관리의사가 「간호원 업무 및 실무처리자세」에 관해 강의를 했다.

또한 방사선 분야에서는 「임상에 있어서의 방사선 검사의 중요성」을 허준교수(

)가, 「방사선 개론 및 특수촬영」에 관해서 전수일부장(원자력병원)이 강의를 했으며, 특수촬영실습을 이도연 건협 서

울지부 방사선 관리의사에 의해 실시했다.

이외에도 개인별 전문분야에 대한 과제 발표가 있었고, 2회에 걸친 분임토의를 실시해 각 조의 토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간호원 및 방사선 업무를 보다 능률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 토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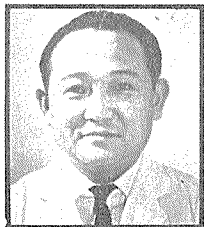
● 건협 인사

건협에서는 지난 12월 26일자(과장급) 및 31일자(부장급)로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 ()안은 전직

- 인천직할시지부 사무국장 한상진(본부 기획부장)
- 충남지부사무국장 최익현(인천직할시지부 사무국장)
- 본부 기획부장 김치수(충남지부 사무국장)
- 본부 특수사업과장 유영규 : 정년퇴임
- 부산직할시지부 사업과장 배정구(인천직할시지부 사업과장)
- 인천직할시지부 사업과장 김창현(부산직할시지부 사업과장)

본회 李根泰 監事 別世

지난 12월 18일 새벽 향년 61세로



본회 李根泰 감사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세브란스의대, 연세대학원을 졸업하고, 농촌위생연구소, 국립중앙방역연구소 등에서 일한 바 있으며, '60년부터 지금까지 연세의대 교수 및 열대의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기생충학 정착과 기생충퇴치, 열대풍토병 연구 등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는 또한 미 루이지니아주 투레인 의대에서 기생충학을 연구했으며 연세의대 교무과장 등을 역임했고 健協 감사로서 건강관리 사업에도 많은 공을 세웠다.

유족으로는 부인 金淑子 여사와 1남 1녀가 있다.

장례식은 20일 상오 10시 세브란스 영안실에서 연세대장으로 거행됐다.

健協 충북지부 보사회 장관 표창

- '87 사회정화운동 유공단체 표창 받아 -

健協 충북지부가 지난 12월 15일, 보건 사회부장관으로부터 '87년 사회정화운동 유공

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 상은 사회정화운동 추진 실적이 우수해 타단체에 수범이 되고 강력한 정화 의지와 노력으로 정의사회 구현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12월 26일, 이관영 사무총장 전달

건협 직원들은 주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성금을 모금해 세모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자칫 잊혀지기 쉬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한편 모금된 금액은 본부 이관영 사무총장이 12월 26일 아침 보사부 장관과 동행, KBS 불우이웃돕기 모금 캠페인 사랑의 대행진에 전달했다.

국군 장병 위문금 모금

총 1,106,700원

健協 본부 및 지부 직원은 지난해 연말연시를 맞아 국군장병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위문금 1,106,700원을 모금을 하여 전달했다.

健協 '87년도 종무식

- 지난해 12월 31일

健協 본부 및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무식을 홍보관에서 갖고 '87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에는 보다 발전적인 사업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